

왜 대한건축사협회가 UIA에 가입해야 하는가?

Why KIRA Must Take Part in UIA?

김지덕 / ARCASIA Forum 10 집행위원장

by Kim Chi-Dok

우리나라에는 건축설계 관련단체로 대한건축사협회(KIRA)와 한국건축가협회(KIA) 두 단체가 있다. 이들 두 단체중 대한건축사협회는 아시아 16개국의 국제건축사단체인 ARCASIA에, 한국건축가협회는 UIA(세계건축사연맹)의 회원단체로 각각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국내 건축설계 관련단체가 각각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특히 실무건축사 관련단체들의 국제기구인 UIA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닌 한국건축가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건축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한국건축가협회가 국내 건축단체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규모와 성격 등을 비교해 볼 때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사업에 관한 법적인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축사면허가 없는 건축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건축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시험 및 건축사등록업무, 경력관리를 비롯한 국내·외에서의 건축사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대한 사무조직을 보유한 전문단체이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건축사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33조에 의거,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일찍부터 UIA회원단체로 가입돼 있어, UIA관련업무는 물론 외국 건축관련 단체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모든 Practice Architect 업무관련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형식상으로는 한국건축가협회를 경유하여 왕래되면서도, 실제 국내에서의 실무적, 법적 업무처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ARCASIA 16개 회원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2개 협회가 국제기구조직에 따로 가입하고 있는 예가 없이, UIA든 ARCASIA든 어느 경우든 자국내의 동일한 단체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WTO체제가 정부차원에서 합의되어 뉴라운드에 이르는 등 격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는 UIA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을 상대로한 협상에 있어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협상에 있어 창구를 일원화하므로써 이러한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간의 역할 정리를 위해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UIA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내의 건축사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인정하는 등록건축사단체로서, 건축사관련 모든 업무는 물론 건축사 자격에 관한 UIA 국제기준권고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따른 국내 교섭당사자로서 정부측과 더불어 민간측 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건축분야의 국제기구로서 건축교육기조연한, 개업관련 사항, 건축문화 창달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UIA의 규정을 보더라도 "Architect란 국가가 인정한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하여 개업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원자격 또한 "건축사자격증을 취득 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실제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한건축사협회가 한국의 건축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UIA에 가입할 수 있도록 UIA본부에 가입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은 등록건축사 7,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등록돼 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1,200여명의 전체회원중 약 75%가 건축사로서, 거의 모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이중등록된 회원이 많은데, 최근에야 정관을 개정해 건축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정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사자격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두 단체에 이중가입돼 있는 실정으로, 단체성격으로 보아 이들 두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ARCASIA 16개 회원국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얼마전 서울에서 개최된 ARCASIA Council Meeting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안을 결의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후원아래 ARCASIA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건축사단체간 정보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통신원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각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폭넓은 국제활동을 해왔다.

특히 현재 UIA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구 가운데 하나인 건축사실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에도 현 UIA회원단체인 한국건축가협회의 공식요청에 따라 한국측 대표자격으로 워싱턴 회의, 북경 제 21차 UIA대회의 PPC회의, 1999년 체코 프라하 회의 등 매년 UIA의 PPC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건축정보 및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각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밖에 미국의 AIA와 NCARB(건축사등록위원회)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각국의 건축사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발표함은 물론, 건설교통부, 대한건축학회와 더불어 건축교육관련 제도 개선, 향후 우리나라 건축학교육과 건축공학교육의 제도개선, UIA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정책 등을 연구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건축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사협회가 UIA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지만, 여기에는 건축가협회를 비롯한 우리 건축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일각에서의 우려처럼 대한건축사협회의 UIA가입이 단순히 국제사회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로 잘못 인식되어져 건축인들간의 불협화음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국건축과 건축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축계의 대외 협상창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야 한다.